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2024 KEPCO의 자기소개서



나는 [**청바지**] 이다

어떤 옷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 자주 찾아 입게 되는 청바지처럼
많은 사람에게 편안하고 자주 찾게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청바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엄청 화려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나로 회사를 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한 긴장을 빼고 일을 대하니깐 하루하루가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 정희수 충북본부 진천지사 고객지원부 사원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4. 05 | vol.611

i am

20
24
05
may
vol.611

진 취 적 으 로

G O - A H E A D

앞 서 가 며

시 대 를 바 꾀 다



우리의 작은 의지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녹색 미래를 향한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here i am, i am KEPCO

i am



통권 611호 2024년 5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4년 5월 1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4 ESSENTIAL KEPCO

녹색 세상을 향하다, 전환

10 TIMELINE

“에너지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조성해 갑시다”

12 ZOOM IN

젊고 유연한 한전 만들어 가는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

14 LIGHT

직류! 거스를 수 없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흐름

18 FOCUS

‘전기차 스마트충전 기술’로
국민DR 사업 추진

20 KEEPER

오늘을 달리며 기록을 만드는
힘찬 발걸음
한전 육상단

22 SITE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전력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4

26 GREENSIGHT

지구를 위한 디자인,
남서울본부와 함께 새활용 알아가기

30 VIEW

강가를 따라 흐르는 빛
밤이 내려주는 고요함

32 CURATION

감성을 자극하는 전시회의 향연,
미술로 떠나는 봄날의 여행

34 MIND&U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일상 속 중독

36 WIDE

모바일의 악몽에서 깨어난
‘마이크로소프트(MS)’

38 TALK

경북본부 직원들의 MOVIE TALK
<덧글부대>

42 K-CREATOR

어느 춤신춤왕의 댄스 연대기

44 MAGAZINE P

봄날의 휴식 같은 편안함
안양군포의왕지사

46 人STARGRAM

48 NEWS

50 ON KEPCO

녹색 세상을 향하다

전환 轉換

전환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꾸는 것이며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 빛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온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 녹색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Switch

PART 1

미래를 이끄는 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녹색 미래를 위한 열 사람의 한 걸음

지구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녹색 에너지는 지구의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뒤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지구와 함께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 보자.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탄소중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류는 석탄화력 발전으로 지금의 문명을 이룩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뜻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의 길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다.

PART 2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녹색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전은 더 크고 위대한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라는 경영방침을 새롭게 수립하며
에너지 전환으로의 길을 앞장서고 있다.

에너지 전환으로의 길

한전의 선언

ZERO for Green

2050년까지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CF100 (Carbon Free Energy 100%)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공급·사용에 관한
이니셔티브. 국내는 'CF연합'이 지난해 출범했으며,
한전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01 규모도, 역량도 국내 최고!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 마중물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한전의 전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23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주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외국계 개발사를 제외하면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 중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 개발 역량을 지니고
있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결과

전남 신안 전북 서남권 제주 한림

1.5GW **1.2GW** **100MW**



02 태양광 설치하면 부지를 못 쓴다? '영농형 및 염전·수중형 태양광'

태양광 사업은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이나 우리나라 특성상 좁은
국토로 인한 부지 확보 곤란, 산림 훼손 등의 단점이 뒤따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은 농업과 태양광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및 염전에 수중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과 소금을 동시에 얻는
염전·수중형 태양광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집약형 태양광 개발 및 보급 확대

국내 최대 영농형 태양광 설비 구축

350kW



03 안전 플러스, 탄소 마이너스 '세계적인 소형모듈원전(SMR)'

소형모듈원전은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
소규모인 만큼 설계 및 건설 방식이 간소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은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증기 판매,
해수 담수화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소형모듈원전의 장점

- 안정적인 전력 생산
- 증기 판매
- 그린수소 생산
- 해수 담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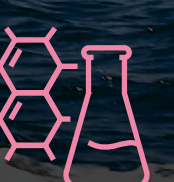


04 새로운 발전 기술로 탄소중립 앞장 '수소·암모니아 기술개발'

한전은 수소·암모니아 업스트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2MW급 그린수소 생산 및 운영 기술을 나주에서 실증 중이며 향후
10MW급 이상의 수전해 설비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암모니아·수소
연소 발전의 단계적 확대,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소·암모니아 전 주기적 인프라 기반 구축 계획

- P2G 기반 그린수소 생산
-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구축 추진
- 수소·암모니아 혼소 시험센터 구축



PARK SE-HO

박세호 부장

해상풍력이 한전이 그리는 녹색 미래에서 주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최근, 해상풍력사업단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한전의 국내외 해상풍력 사업을 이끄는 주역이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사업단은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의 포부를 다지며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 중이다. 바다를 품은 바람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자 하는 이들의 바람을 들어보자.

PART 3



01

저는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의 일원으로 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내를 넘어 해외 해상풍력 시장 진출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대의를 품고 국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다지겠습니다.

02



KIM KEUN-SEONG

김근성 차장



03

BAE MYEONG-KWAN

배명관 차장

국내외 육·해상풍력 개발에서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전 경험을 겸비한 한전인입니다. 국내 해상풍력 및 해외 육상풍력 등 풍력 전반에 축적한 One Cycle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한전 최초 해외 해상풍력 발전소장에 도전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김정호

I AM KEPCO 202405

KIM JONG-HYEOK

김종혁 차장



04

우리 회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실제로 바다에 건설되고, 나아가 운영되는 과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관련한 해상풍력 사업이 우리 회사의 매출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05



WEON SUN-JAE

원선재 대리

대규모 해상풍력은 덴마크와 영국 등 선도국가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한전과 해외 기관 간 고위급 소통은 물론 실무급 소통까지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 전문성을 더욱 갈고닦으며 노력하겠습니다.

06



LEE JUN-HO

이준호 차장

현재 해상풍력은 선박, 항만 등의 인프라 부족 및 제도적 지원 미비 등으로 시장 형성에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한전뿐만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조성해 갑시다”

대규모 전력망 적기 확충·보강에 최선 다할 것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오지 사업소 방문

김동철 사장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요 전력설비 건설 현장과 인근 오지 사업소를 방문했다. 이번에 실시된 현장점검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서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경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이는 김동철 사장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에너지 신시대,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먼저 대규모 국가기관 전력망인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의 동해안 변환소(경북 울진)와 1호 철탁 건설부지를 방문해 인력·장비 등 필수 자원의 수급 현황을 집중·점검하고, 민원·인허가 등 주요 시공 리스크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 대응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강원·경북본부 관내에 적용 중인 AI 기반 산불 조기대응 시스템 및 자산관리 시스템(AMS) 등 핵심기술 적용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스템별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전사 확대와 사업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인근의 오지 사업소를 방문하여 재무정상화 조기달성, 기업체질 혁신,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김동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알리고 ‘주인의식’과 ‘에너지 보국’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비록 지금은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보강·건설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에너지신산업과 신기술, 원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전기요금 의존도 완화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조성·확대·발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김동철 사장은 건조한 봄을 맞아 산불취약지역으로 대규모 산불의 아픔을 겪었던 강원과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전력설비 건설·운영 현장과 에너지 신기술 활용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 예방과 사업별 진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제2의 원전 수주를 위해 한전의 능력 홍보 당부

재외공관장 대상 ‘대한민국 원전수출 현황과 미래 전략’ 설명회 개최

김동철 사장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4월 2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미국, 영국, 사우디 등 해외원전사업 관련 주요국 재외공관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재외공관장들의 생생한 현지 동향 정보를 반영하여 발주국 맞춤형 수주 전략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재외공관장들에게 UAE 원전 건설 현황, 해외 원전사업 개발 현황 및 혁신형 소형 모듈원전(i-SMR) 등 원전 관련 현안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200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수출에 성공한 UAE 원전 사업의 원동력과 건설 및 운영

현황,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장기간 축적해 온 경험과 신뢰 자산을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후속 원전사업 개발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에너지 산업계 화두 중 하나인 혁신형 원자로에 대한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철 사장은 “에너지 안보 이슈와 탈탄소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제2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재외공관과 한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원전 도입국에 우리의 능력과 장점을 적극 홍보해 주기를 재외공관장에게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팀코리아 모두가 에너지 보국(報國)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2009년 UAE에서 올렸던 원전 수주의 승전고를 다시 한번 울릴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젊은 2030세대 구성원이 한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그들의 목소리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의 변화를 이끌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를 소개한다.

젊고 유연한 한전 만들어 가는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

소통 능력과 참신함, 변화 이끄는 힘

한전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는 전사 4직급 이하 직원 중 기업 문화 개선과 회사 현안에 관심이 많고, 열정 넘치는 자발적 희망자로 구성된다. 올해로 5기를 맞은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이하 주니어보드)는 200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30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주니어보드 1기가 기업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2기부터는 본사 주요 처·실 TF 등에 참여해 업무 분야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사업소 단위의 자체 주니어보드 구성 및 운영으로 점차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주니어보드는 에너지리더스 포럼과 같은 역량강화 교육과 전력산업 현장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면서 경영진과의 타운홀 미팅, 랜선 토론회 등 양방향 방식의 소통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MZ세대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한전의 기업 문화 개선사항에 대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본부별 특성에 맞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니어보드는 자신들의 의견이 회사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 크고 작은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소통 능력과 참신함을 수용하기 위해 먼저 주니어보드와의 협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

노사협력처는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한전의 기업문화가 더 젊고 민첩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다. 더불어 회사 주요 현안들에 기성세대의 경험·지혜와 함께 2030세대 직원들의 창의성을 조화시켜 다양성이 존중받는 유연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 MZ세대 구성원이 합심하여 내실 있는 활동을 5년째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전의 차세대 리더 KEPCO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긍정 에너지가 대내외에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내가 주니어보드 5기로 활동하는 이유



박효진 대리 ● 해외원전개발처

상호존중이 우선시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한전도 현재 2030세대 직원이 60%에 육박했습니다. 유연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세대인 만큼 이 장점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원수연 대리 ● 해외원전운영실

외부 기업의 주니어보드와 협업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고요. 더불어 탈탄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서면이 아닌 태블릿 등으로 보고 문화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좌측부터) 박효진, 원수연, 범원석, 오상희, 김이안

범원석 대리 ● 노사협력처

기업문화 개선활동, 특히 사내 에티켓을 주제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오상희 사원 ● 해외원전개발처

아직 많이 부족한 입사 1년 차 신입입니다. MZ세대로 영상 콘텐츠에 욕심이 있는 편이라, 기회가 생긴다면 창의력을 발휘해 많은 직원분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김이안 사원 ● 송변전건설단

지난 기수의 한전 경호대 웹툰 시리즈를 공감하며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기업문화 개선에 도움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됐고,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주니어보드 주요 활동

본사TF 및 정책참여

인사제도 혁신 등 본사 TF 참여 9건, 중대재해 근절계획 현장 피드백 외 주요 정책 피드백·제안 반영 9건

18건

랜선 토론회

협업 및 소통방안, 세대 간 갈등 해소방안 등 기업문화 전반에 관한 경영진 주관 비대면 기업문화 개선 토론회 참여

106회

캠페인

감사 릴레이, 화식문화 개선 등의 전사·사업소 단위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기획, 전개

62회

카드뉴스

탄소중립 실천, 직장 내 에티켓 등 공유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카드뉴스 제작

58회

현안 탐구

전기요금제도, 경영위기 극복방안 등 현안에 대한 심화학습·토론을 통해 보고서 도출

6회

영상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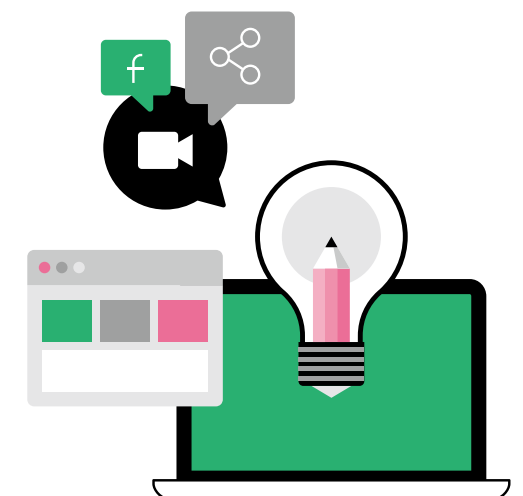
세대 간 이해, 음주운전 근절 등 캠페인 영상 제작

34건

활동 공유

주니어보드 활동내용 실시간 공유로 우수사례 전사 확산

265건



직류!

거스를 수 없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흐름

한전은 재생에너지 기반 직류전원 증가,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립, IT 산업의 급성장 등 최근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미래전력 공급방식 변화의 첫걸음인 DC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4일 DC 기술 발전 포럼을 마련했다. AC 송압 사업에 비견되는 사업으로 1GW 발전기 5개 대체와 에너지 효율을 10% 개선하여 '제2의 전력망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DC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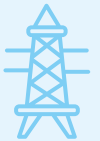
전력 환경 바뀌며 '직류 기술' 주목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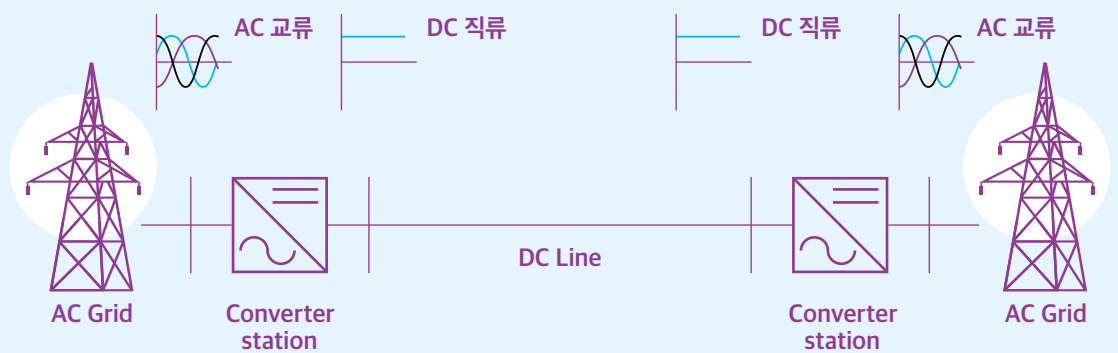
19세기 후반에 에디슨과 테슬라가 직류(DC)와 교류(AC)를 두고 전력 시스템 주도권을 경쟁했다.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높은 전압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직류를 변압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압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운 테슬라의 교류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전력 시스템의 표준이 되었다.

140년이 흐른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전력산업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직류전원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또한, 전자기기의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직류 기술의 장점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DC(Direct Current) 전력 전송은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술이며, 전압 등급에 따라 HVDC(High Voltage DC), MVDC(Medium Voltage DC), LVDC(Low Voltage DC)로 구분한다.

HVDC는 100kV 초과 고압으로 대규모·장거리 송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용화되어 제주 #1, #2 연계선, 북당진-고덕 등 실계통에 적용하여 운영 중이고, MVDC는 1.5~100kV 전압으로 중규모·중장거리 전력 전송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계가 많은 배전계통에 주로 적용하며 표준 전압, 설계 기준 등 국제표준이 수립되지 않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다. LVDC는 1.5kV 이하 저압으로 DC 빌딩 등 직류부하 공급에 활용하며 상용화 초기로서 활용을 위한 제도(기술표준, 요금) 수립 단계다.

	 LVDC DC 부하 전력공급 효율성 향상	 MVDC 재생에너지 연계 유리	 HVDC 전력손실이 적어 장거리 송배전 유리
적용분야	저압배전	배전계통	송전계통
전압레벨	1.5kV 이하	1.5~100kV	100kV 초과
전송용량	1MW 이하	수십 MW	수백 MW
개발수준	상용화 초기	개발 중	상용화



DC 전력 전송 개요도

송전용량 크고 장거리 송전 가능한 DC, 계통효율 향상에 기여

분산전원의 연계와 DC 부하* 증가로 배전망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DC 기술은 송전용량이 크고, 장거리 송전이 가능하여 계통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그간 MVDC 기술은 경제성이 부족해 활용이 미흡했으나, 최근 HVDC 기술 확산에 따른 전력 소자 가격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주목받는 중이다.

DC 전환사업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42년에 걸쳐 AC 110V를 220V로 전환한 배전 송압사업에 비견되는 사업으로, 1GW 발전기 5개 대체와 에너지 효율을 10% 개선하여 '제2의 전력망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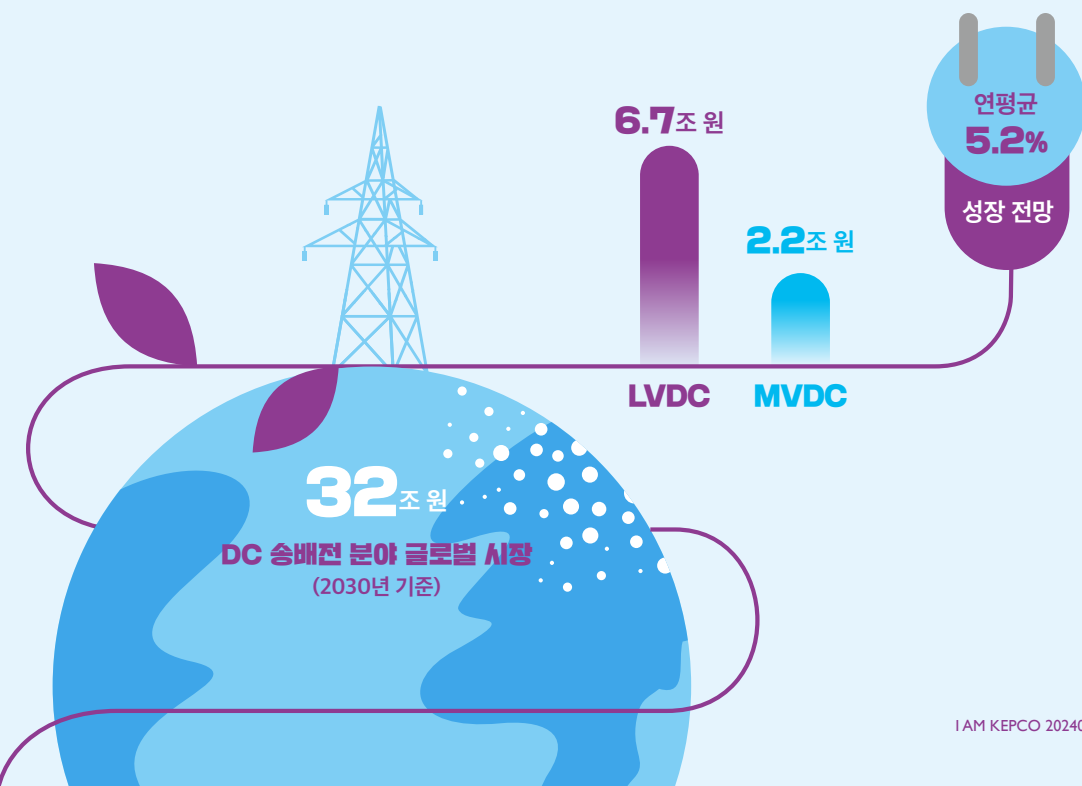
DC의 기대 효과로서 전기사업자 측면에서는 장거리 송전 시 교류에 비해 고압직류의 전력손실이 매우 적어 효율이 높고, 직류 기기에 전원을 직접 공급하면 교류와 직류 간의 변환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냉장고, 컴퓨터, TV 등 직류 가전제품에서 인버터 장치를 단순화해 가전제품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내 전력 변환으로 인한 손실을 줄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 DC 빌딩,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LED 조명 등

서거차도에 DC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저압 직류배전 기술 개발

한전은 국내 DC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중이다. 저압 직류배전(LVDC)의 경우 전남 서거차도에 DC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여 저압 직류배전망 독립성 사업모델 실증을 한 결과 교류 대비 에너지 효율이 10%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판교의 HD현대그룹 글로벌 R&D센터에 LVDC를 도입하여 DC 빌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또한, 실계통 운전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직류배전용 전력설비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최적 운영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고압 직류배전인 MVDC의 경우 에너지신사업 규제자유특구, AC/DC 하이브리드 배전 네트워크,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 등 정부의 사업 참여로 운영기술을 개발 중이다. 나아가 2030년까지 랜드마크 LVDC를 공급하는 직류배전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페로브스카이트 BIPV,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연료전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축 사옥을 DC 기반의 에너지자립형 건물로 구축할 계획이다.



장거리 대용량 전송 DC 사업모델, 투자비 절감



한전의 DC 사업모델은 ❶장거리 대용량 DC 전송 ❷근거리 대용량 DC 전송 ❸도서지역 DC 마이크로그리드 ❹빌딩 DC 공급 ❺DC Town이다.

장거리 대용량 DC 전송은 수십 MW의 신규 공급과 재생에너지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것으로, AC 전압 강하와 용량 부족으로 송전선로가 필요한 개소에 MVDC를 적용하여 투자비를 줄이는 사업모델이다. 근거리 대용량 DC 전송은 AC 용량 부족으로 공급이 지연 중인 개소에 대용량의 사용자 전용 DC 부하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송전선로 신설에 비해 MVDC 적용으로 투자비를 절감하고, 고객은 AC→DC 변환 효율 향상으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도서지역 DC 마이크로그리드는 친환경 에너지자립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 농어촌 분산 신재생에너지와 DC 부하를 직접 연계하는 것이다. DC→AC→DC 변환 단계 축소로 고객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빌딩 DC 공급은 아파트, 사무용 빌딩 외부에 LVDC Station을 구축하여 DC를 공급한다. 고객은 DC 내선 투자비 증가를 전기요금 절감으로 회수할 수 있다. DC Town은 지역 단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사업모델을 종합하여, DC 기본 전력망을 운영하고 에너지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향상하는 사업모델이다.

DC 기술 상용화,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져

한전은 교류(AC)에서 직류(DC)로 대체하는 MVDC/LVDC의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며 미래전력 공급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전력소비 효율화로 에너지 절감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직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 각종 안전규정을 비롯해 국내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건설, 전자제품 등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가려는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의체인 'DC 사업 얼라이언스' 출범에 힘을 쏟는 한편, DC 사업모델을 실증 및 고도화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차 스마트충전 기술’로 국민DR 사업 추진

한전은 전기차 스마트충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DR 사업을 추진한다.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충전 애플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국민DR에 참여하고 충전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한전은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기차 스마트충전’ 신뢰성 우수한 DR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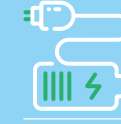
정부 목표에 따르면 전기차는 2030년까지 420만 대, 충전 인프라는 123만 기가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로 인한 전력 수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2036년이 되면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하계) 모두 우리나라 전체 전력계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전력수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신사업 분야 신 수익 창출을 위해 스마트충전(V1G)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원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

스마트충전 기능이 갖추어진 전기차 충전기는 즉시 부하제어와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DR 시장에서 신뢰성이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요반응제도 ‘국민DR(Demand Response)’은 ‘에너지쉽표’라고도 하며, 가정 또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전력거래소가 요청했을 때 평상시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력 소비를 감축한 고객에게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주로 3개 권역 이상이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거나, 예비력 ‘준비’ 또는 ‘관심’ 단계에서 전기 사용자에게 요청한다.

국민DR제도는 2019년에 최초로 신설되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DR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일 발령 한도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참여 요건을 계약전력 70kW에서 200kW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전기차를 신뢰성 있는 수요자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참여고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전기차 충전기 참여고객 가이드라인〉

- 수요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원격제어를 통해 충전기의 출력을 정격출력 미만으로 조정 또는 충전기 이용 금지 조치
- 나. 문자, 앱, 알림, SNS 등을 통해 충전기 이용 고객 전체에게 감축 및 이용 자제 요청



한전 플랫폼 ‘차지링크’로 참여 가능

전력연구원은 2023년 9월까지 정부 R&D ‘EV 수요자원화를 위한 VGI 통합제어기술 개발 및 V2G 실증’ 과제에 참여하여 전력수급 상황 또는 제어 명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최대출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충전(V1G)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에너지신사업처는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 전기차충전 국민DR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차지링크 플랫폼과 스마트충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기차를 수요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국민DR 참여 프로세스를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전은 국민DR 발령 시 한전의 EVC 플랫폼 ‘차지링크(ChargeLink)’를 활용하여 수요관리사업자인 그리드위즈로부터 받은 국민DR 시행 정보를 충전사업자에게 중개하고, 충전사업자는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며 고객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는 수초 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실제 국민DR 참여 시간이 되면 차지링크는 스마트충전제어 시스템으로 충전기의 제어를 명령한다. 이후 스마트충전제어 시스템에 연결된 충전기의 최대출력을 100%에서 10%로 제어하여 국민DR에 참여하게 된다.

SK일렉링크, 스칼라데이터, 티비유 등 충전사업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기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참여를 안내하며 참여 실적에 따른 충전 포인트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충전 애플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국민DR이 시행되는 충전소에서 전력수요 절감에 동참하면서 충전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

전기차 충전기는 즉시 부하제어 또는 Auto DR(자동 수요반응) 참여가 가능하여 실제로 스마트충전 기능이 활성화되면 전력계통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는 2030년까지 420만 대가 보급될 예정으로 이 중 10%에 해당하는 42만 대의 전기차에 대해 스마트충전 기술을 이용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전력계통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차 스마트충전 기반 국민DR 서비스 개발을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로는 한전 완속충전기 420기, 2단계는 한전 급속충전기 1,934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적을 검증한 후 한전의 전기차충전 플랫폼 차지링크에 연계된 모든 충전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제도개선에 발맞추어 전기차 스마트충방전기술(V2G)을 이용하여 전기를 수요자원에서 발전자원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민간 기업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을 달리며 기록을 만드는 힘찬 발걸음

한전 육상단

●

지난 서울동아마라톤대회에서 하프마라톤 우승을 포함해 상위권을 휩쓸며 우수한 성적을 내 다시 한번 육상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전 육상단. 한전 육상단은 1962년에 창단된 후 국내에서 가장 오래 전통을 유지하며 한국 육상계를 이끌어 왔다. 늘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봄날의 싱그러운 새벽공기를 오늘도 가른다.

1962's

오랜 전통을 지닌 최고의 육상단

막 결승선을 처음으로 통과해 땀이 흐르는 그의 얼굴엔 한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출발선에서 우승을 예상했다는 질문에 “우승할 줄 알았다. 컨디션이 좋았다”는 당찬 대답을 내놓았다. 서울동아마라톤대회 하프마라톤에서 우승한 김태훈 선수. 한전 육상단에서 2년 차를 맞고 있는 그는 단박에 우리나라에서 육상계를 발할 유망주로 떠올랐다. 육상단은 이와 함께 풀코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마라톤 선수로 꼽히는 심종섭 선수가 2위, 주장인 신현수 선수가 5위에 오르며 한전 육상단의 저력을 다시 한번 알렸다. 김재용 감독과 박주영 코치, 10명의 선수로(군입대 소유준 포함) 구성된 한전 육상단. 이들의 매번 올리는 우수한 성과는 자기와의 싸움인 혹독한 훈련에서 나온다. 단원들은 매일 하루 2회의 훈련으로 40km 이상을 달린다.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하여 훈련하고, 오후 3시부터 다시 이어지는 훈련. 한 달이면 운동화 두 켤레의창이 모두 닳는 운동량이다. 이 같은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이들은 훈련량만큼 언제나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서울동아
마라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인방.
왼쪽부터 신현수 선수,
심종섭 선수, 김태훈 선수.

한계를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신록으로 봄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미사조정경기장이 이들의 훈련 장소다. 봄빛 내리는 호수 옆길에서 또는 운동장 트랙에서 자신을 한계까지 내몰며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의 열정이 봄날의 아름다움을 압도하는 듯하다. “마라톤은 정직한 종목입니다. 많은 훈련량이 없으면 좋은 성적도 없습니다. 선수들의 한계에 도달하는 훈련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최고의 마라톤 선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재용 감독이 늘 선수들에게 강조하며 한전 육상단을 이끌어가는 전략이다. 그래서 그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함께 뛰기를 마다치 않는다. 노력과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선수들은 4월부터 시작되는 트랙경기 시즌을 맞아 5,000m, 10,000m 경기에 임하며 스피드 향상에 목표를 두고 훈련하고 있다. 7월부터는 가을 마라톤 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마라톤 대회는 보통 4개월을 준비하는데, 지구력 훈련과 도로 페이스 훈련, 고강도 스피드 훈련을 이어가다 대회 3주 전부터는 스피드 향상에 집중한다.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마라톤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저장하기 위한 식이요법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 반복되는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힘은 ‘기록 단축’이라는 선수들의 목표의식이다. ‘더 빠르고 더 짧은 시간’을 목표로 나와 싸우며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들은 오늘도 새벽공기를 가르며 달린다. 그들의 힘찬 발걸음 뒤로 도로에 비친 새봄의 아지랑이가 뒤따르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철, 페이스메이커 알프레드, 정태준, 신현수, 이경호, 박종학, 심종섭, 김태훈, 김건오.



아침에 호수 주변을 뛰는 선수들.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한전 육상단을 이끄는 김재용 감독.



선수들과 소통에 힘쓰는 박주영 코치.

에너지대전환의 시대, 전력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에너지 전환을 향한 대항해의 시대다. 교류에서 직류로, 중앙전원에서 분산전원으로, 전력산업의 판이 바뀌는 에너지대전환의 시대. 특히 미래 전력산업을 이끌 키워드로 꼽히는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ICT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 산업으로, 최근에는 분산에너지와 ICT 전력망 등 요소의 결합을 통해 통합발전소(VPP), 마이크로그리드(MG), V2G, 에너지스토리지시스템(ESS)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미래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Korea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KSGE)
2024

Smart Grid Exposition

전자와 원자의 에너지 파동을
형상화한 영상 위로
새롭게 변화하는 한국전력의 모습을
역동적인 모션 영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Global Energy Leader

Nuclear Power

Advanced Technology

2 HYDROGEN



- 1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위대한 항해'라는 테마로 한전의 에너지신산업을 소개하는 키오스크를 관람객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 2 한전홍보관은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해놓았다. 사진은 에너지토피아 모형을 통해 에너지의 미래를 체험하는 관람객.
- 3 DC특별존을 소개하는 에너지신사업처 주상규 차장.
- 4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가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다.

모두의 바람 '에너지 전환',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서 확인하다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발맞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4'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주관해 4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4는 '전력 신산업, 미래에너지를 그리다'라는 구호 아래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전 ▲분산에너지 산업전 ▲EV충전인프라 산업전 등 세 개의 산업관으로 전시회를 구성했으며, 세미나와 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동시에 개최됐다.

이번 엑스포에는 송배전망 관리방식 지능화, 전력계통 실시간 운영-제어, ESS, 분산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최신 기술이 총출동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는 279개 기업이 총 779개 부스를 운영하며 에너지신산업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사흘간 진행된 전시에는 업계 종사자, 바이어, 산학연 관계자 등 3만 1,960명이 전시장을 찾아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신산업에 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전홍보관, DC특별존 등 풍부한 볼거리,

체험거리로 관람객과 소통

다양한 기업들 한가운데 거대한 미디어월을 향해 힘차게 부딪히는 파도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부스 한가운데 우뚝 솟은 미디어타워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춤을 추며 화려한 그래픽을 구현한다. 푸르게 빛나는 'KEPCO' 로고 아래에서 한전은 '에너지대전환 시대, 전력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스

마트 에너지 리더'라는 주제로 한전의 에너지 신사업과 혁신 기술 관련 다양한 연구개발 및 사업 성과를 전시했다.

한전홍보관은 관람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풍부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앞서 언급한 미디어월의 아나모픽 영상(영상을 왜곡시켜 착시를 일으킴으로써 평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입체감을 구현하는 기법), 미디어타워의 모션센서도 그 일환이다. 또 '한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위대한 항해'라는 주제를 Greeting(한전 소개), Renewal energy(재생에너지), Advanced Technology(신기술), Nuclear Power(원전사업), DC Grid(직류전력망)라는 5개의 키워드로 스토리텔링해 관람객들이 키오스크를 조작하며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한전에는 수소 암모니아 혼소발전설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VGI 통합제어 설비, MVDC 설비 등의 축소 모형들을 전시해 우리가 이뤄가야 할 에너지토피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한전은 DC특별존을 구성해 에너지대전환 DC(직류)시대를 이끄는 우리 회사의 DC 전력망 추진계획과 사업모델을 공개했으며, MVDC(중전압 직류계통)와 LVDC(고전압 직류계통) 성과 관련 모형과 영상 등을 보여주며 미래의 DC시대를 입체적으로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기간 동안 한전홍보관에는 KSGE 전체 관람객 약 3만 명 중 7,200명가량이 방문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체험했다.

에너지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한전의 활약을 전시회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선두에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한전의 항해가 미래의 에너지토피아를 향한 행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KSGE에서 한전의
미래에너지산업 홍보를 위해
DC특별존 앞에 모인
어벤저스들.



자구를 위한 디자인,

남서울본부와 함께 재활용 알아가기

재활용은 알아도 재활용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하지만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이다. 재활용의 다른 말이 업사이클링으로, 재활용은 단순히 물건을 재사용하거나 가공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데 반해 재활용은 디자인을 더해 본래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서울본부 직원들이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재활용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해에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만 6,000톤에 달한다.



글. 강초희 사진. 김정호

이제 '재활용'하세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한 해에 버리는 일회용품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에 따르면 무려 13.6kg에 달한다. 그렇게 모여 한 해에만 70만 3,347톤의 일회용품이 버려진다. 폐기된 일회용품은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소각할 경우 인간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대부분 매립된다. 문제는 매립 시 일회용품이 분해되기까지 최소 500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활용되지 않은 일회용품은 토양 생태계에 큰 피

해를 주고,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을 거름 삼아 자란 식재료가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셈이다.

이제는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재활용을 영어로 하면 Up-cycling이며, Upgrade와 Recycling이 합쳐진 말이다. 이처럼 재활용은 물건을 재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발 더 나아가 물건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다. 폐기된 현수막으로 만든 카드지갑, 오래된 소방호스로 제작한 가방, 버려진 유리조각으로 꾸

민 스마트폰 그림톡 등이 재활용에 해당된다. 또한, 재활용은 재활용에 비해 분해 및 재합성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 에너지 투입이 적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다. 이로써 탄소중립의 완벽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가치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에게 침투해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재활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선점한 분야는 단연 패션업계다. 일례로 매년 440톤에 가까운 방수 천막을 활용해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는 한 글로벌 업사이클링 브랜드는 전 세계 45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다. 제품 개당 가격이 10~30만 원대로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MZ세대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 받으며 패션계의 스테디셀러가 됐다. 2022년 국내 업체가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사용하고 버린 현수막으로 지갑과 가방을 업사이클링해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 목표액을 1,100% 초과 달성했다. 이 경우도 패션업계를 주도하는 재활용의 좋은 예시다. 물론 패션 외에도 인테리어 아트 소품, 유아용 장난감, 심지어 바이오가스로도 새롭게 태어난다. 사용되는 제품군도 다양하다. 군용 낙하산 폐기물, 오래돼 버려진 텐트, 시대 흐름에 뒤쳐진 의류 등등. 오래되고, 망가지고, 으레 버려야 할 것들이 새 시대를 맞이해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일회용품, 작품으로 태어나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에 남서울본부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미세먼지 없는 좋은 날,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도슨트를 듣고 자투리 가죽을 카드지갑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다. 도슨트 진행을 맡은 강사

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재활용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재활용과 재활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재활용과 재활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강사는 이어 서울재활용플라자 이곳저곳을 돌며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각인시켰다.

서울재활용플라자는 재활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회용품을 활용한 예술 작가들의 작품과 재활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제품을 전시한 장소가 돋보였다.

제각기 개성 담긴 카드지갑 업사이클링
재활용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한 시간 정도 듣고 난 뒤 자투리 가죽 원단으로 카드지갑을 만드는 체험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투리 가죽 원단은 주로 가죽 가방을 만드는 공장에서 남아 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한 해 버려지는 가죽만 6,000톤에 달한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가죽 신발 한 켤레를 완성하는 데 탄소 10kg이 필요하며, 가죽을 만드는 필수 공정인 무두질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학물질만 무려 250여 개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어마

어마한 양의 가죽이 환경을 파괴하며 만들어졌지만, 제 쓸모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실정이다.

카드지갑 만드는 일은 간단하다. 마음에 드는 가죽 두 개 선택하기, 마감재를 발라 가죽 털 닦기, 바느질하기, 본드로 바느질 마무리하기다.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가죽을 선택하는 일에서 장벽에 막힌 직원들이 더러 나왔다. 한 무더기는 형형색색의 가죽 자투리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흘러나온 것. “마치 할인마트에 온 것 같아.” 전자제어부 이서인 대리가 딱 맞는 비유를 함으로써 모두를 웃게 했다. 가죽을 고르고 나니 그 후는 일사천리다.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가죽 재질상 꼼꼼하고 타이트하게 바느질했으며, 중간 중간 강사에게 잘하고 있는지 제 카드지갑을 보여주며 조금씩 완성으로의 길을 걸었다.

어떠한 물건이든 자신의 손길이 닿으면 그만큼 애정이 담긴다. 재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재활용을 체험한 남서울본부 직원에게 있어 손수 만든 자투리 가죽 카드지갑이 바로 그런 경우일 것이다. 오늘의 경험은 깨끗한 지구를 위해 멋지게 디자인한 기억으로 남게 되리라.



오래된 가죽 제품, 실밥이 튀어나왔다면?

가죽 가방, 가죽 지갑 등 가죽 제품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실밥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마주하곤 한다. 보통은 실밥을 자르거나 실밥 그트머리를 태우는 것으로 해결하는데, 이런 방법은 가죽을 손상시킨다. 가죽 제품의 실밥이 튀어나왔다면 앞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자.

준비물 : 송곳, 본드(가죽 전문 본드가 아니어도 OK), 가위



- ① 튀어나온 실밥을 최대한 짧게 자른다.
- ② 자른 실밥에 본드를 살짝 바른다.
- ③ 송곳 등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실밥을 구멍에 넣는다는 느낌으로 꺾꾹 누른다.
- ④ 본드를 잘 말리면서 마무리한다.



서울재활용플라자에서 재활용으로 거듭난 자원을 감상 중이다.

재활용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자투리 가죽으로 카드지갑을 만들고 있다.



mini interview

재활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자투리 가죽으로 카드지갑까지 제작한 남서울본부 7인. 그들의 카드지갑 콘셉트와 체험 소감을 들어보자.

[카드지갑 콘셉트]

① 지중설비부 홍정민 대리

[숲의 나무]

많은 분들처럼 저 역시도 재활용은 알고 있었지만, 재활용은 처음이었습니다. 자투리 가죽으로 공방을 하는 강사 선생님을 비롯해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재활용이라든가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② 서초지사 유지호 대리

[심플]

재활용 B2B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크게 구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재활용플라자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③ 전자제어부 이서인 대리

[화려함]

큰 비용 투자 없이 이렇게 버려진 제품들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점이 재활용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는 것 없이, 자투리까지 다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영감을 많이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활용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④ 변전운영부 홍태경 대리

[Like Color]

제가 회색을 좋아해서 카드지갑 가죽도 회색으로 골랐어요. 아무쪼록 오늘이 오기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체험이었고요. 카드지갑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소중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⑤ 변전운영부 양화진 대리

[블랙핑크]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쓰레기가 새 상품으로 태어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물건을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뜻깊은 기회로 카드지갑을 만들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⑥ 전략경영부 이종현 대리

[럭셔리]

도슨트의 경우, 어른에게도 좋지만 어린이들 체험으로도 무척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서울재활용플라자에 방문해 재활용에 대해 알아간다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재활용 클래스 체험도 무척 좋고요.

⑦ 전략경영부 박윤근 대리

[깔맞춤]

분홍색 물건이 많아서 카드지갑도 깔맞춤 하려고 분홍색을 골랐습니다. 오늘 체험은 재활용이란 개념을 잘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재활용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좌측부터)

- ① 홍정민 대리
- ② 유지호 대리
- ③ 이서인 대리
- ④ 홍태경 대리
- ⑤ 양화진 대리
- ⑥ 이종현 대리
- ⑦ 박윤근 대리



서울재활용플라자 홈페이지

강가를 따라 흐르는 빛,
밤이 내려주는 고요함,

도시의 소란을 잠시 잊고
오늘 하루를 위로받아 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전시회의 향연,

미술로 떠나는 봄날의 여행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며 온 세상이 다양한 꽃들로 덮이는 이때, 미술관에는 색색의 감성으로 물든 전시회들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베르나르 뷔페의 광대한 회고전부터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봄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 전시회, 빈티지 필름 속에 포착된 순간 등 예술의 풍부한 색채 속에서 자신만의 봄날을 발견하고,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경험의 공간을 소개한다.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쓰다
스튜디오 지브리
타카하타 이사오展(서울, 부산)

애니메이션의 거장 타카하타 이사오가 써내려 온 50여 년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다. 시기와 주제에 따라 구성했으며, 그의 데뷔작부터 유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품과 제작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이제껏 미공개 되었던 방대한 자료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의 열정과 개척 정신을 마주해 보자.

전시 일정 | 4.26-8.3
전시 장소 | 서울 세종미술관
문의 | 070-8260-0705



삶의 아이러니, 빛과 그림자
베르나르 뷔페
천재의 빛, 광대의 그림자

20세기 프랑스 회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천재로 손꼽히는 베르나르 뷔페의 대규모 회고전이다. 작가가 다뤘던 광범위한 주제들을 그의 세계관에 따라 나누어 구성한 전시로, 4m 대형 유화작품과 함께 다양한 매체와 기법의 작품 1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당대의 유행에 아랑곳 않고 자신만의 그림을 묵묵히 그려 나간 뷔페의 작품과 예술세계를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 일정 | 4.26-9.10
전시 장소 |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 02-801-7955



서양 미술사를 관통하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경주)

근현대 세계미술사를 총망라한 한국 최대 규모의 전시다. 모네와 세잔, 반 고흐, 피카소, 앤디워홀 등의 원화 작품들과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명작부터 컨템포러리 아트에 이르는 서양 미술의 전반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145점의 세계 명화와 아프리카 대표작 등 전 분야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예술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확장될 것이다.

전시 일정 | 1.16-5.26
전시 장소 | 경주 예술의전당
문의 | 1588-4925



사랑의 가장 보편적인 순간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우리가 멈춰섰던 순간들(부산)

80만 장의 빈티지 컬러 필름 컬렉션, 어노니머스 프로젝트가 부산에서도 열린다. 1940년대부터 80년대, 이름 모를 이들이 각자의 필름 속에 담은 일상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순간을 영화처럼 포착한 사진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애정과 순간을 기억하고자 했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전시 일정 | 5.1-9.22
전시 장소 | KT&G 상상마당 부산
문의 | 051-809-5555



희로애락을 그리다
이모션 드로잉

일러스트 단체전인 본 전시는 15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함께한다. 자신만의 작업 방식과 재료로 '희로애락'의 정서를 다채롭게 표현한다. 다양하게 꾸며진 작품들을 통해 다름이 주는 특별함을 마주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전시장 가득 펼쳐진 작품들은 일상 속 무심코 지나쳐버린 감정을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솔직하게 만나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 일정 | 5.9-6.2
전시 장소 | 구캔갤러리
문의 | 02-2675-9997



성찰과 사유의 미학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Burn to shine(강원)

스위스 현대미술가 우고 론디노네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이다. 그는 삶과 자연의 순환,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로써 형성되는 인간 존재와 경험에 대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한다. 조각과 드로잉, 회화, 설치 및 영상을 포함한 40여 점의 작품들은 그의 성찰과 사유의 결과물이다. 작가의 깊은 성찰과 사유의 미학에 다가보자.

전시 일정 | 4.6-9.18
전시 장소 | 원주 뮤지엄 산
문의 | 033-730-9000

Tip

봄날의 전시회를 함께하실래요?



1. 전시 정보 YOUTUBE 채널 '구독하는캔버스'

지면에 소개된 전국의 다양한 전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전시를 관람하기 전에 현장감 있는 감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전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람 포인트도 짚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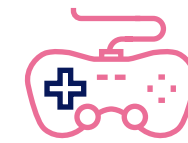
2. 전시 초대권 이벤트 'QR코드 찍고 초대권 받자!'

소개된 전시 중 서울 신도림에서 진행되는 "이모션 드로잉"의 무료 초대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QR코드의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여 본 전시 소개 페이지의 촬영 이미지를 카톡채널 대화창에 보내면 1인 무료 초대권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일상 속 **중독**

일상 속 작은 중독을 아는가? 중독이라고 하면 마약, 도박, 알코올 등이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이제는 중독의 범위가 넓어졌다. 스마트폰, 쇼핑, 운동, 주식 등 일상의 다양한 행위들에 중독되어 생활에 지장받는 이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다. 중독의 위험이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마약? 알코올? 이제는 일상 중독

“어제 게임하느라 밤새웠어”라는 말 대신 이제는 “어제 옷품 보다가 밤새웠어”로 바뀐 요즘. 많은 이들이 일상 속 작은 중독에 허덕이고 있다.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주식 이야기만 하는 주식 중독 직장 동료는 물론이거니와 매일 집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 가는 쇼핑 중독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심지어 운동도 중독된다.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운동 중독은 근육통이 있어야만 하루를 잘 보냈다고 여긴다.

“이런 걸로 무슨 중독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독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중독 행위를 일삼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중독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런 사소한 행위에서 중독에 빠지는 것일까? 중독은 쾌락, 즉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탐닉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중독은 신체적·심리적 의존을 유발해서 중독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금단현상을 겪게 되고 고통스러워한다.



중독, 도파민에 답이 있다

행위 중독에는 폭식증(음식 중독), 문제성 도박 및 게임 중독,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성(性)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 주식 중독 등 다양한 모습의 중독이 있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한국과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중독 현상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중독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에 있다. 우리의 뇌에는 쾌락 중추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다. 이곳에 쾌락자극이 주어진다면 도파민(Dopamine)이라고 불리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행복감(쾌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인간의 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며 즐거움, 행복감, 성적 만족 등의 경험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중독을 유발하는 자극의 경우, 정상적인 수준의 자극보다 훨씬 강력하게 쾌락중추를 자극한다. 이러한 자극에 노출된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나 복권에 당첨됐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쾌감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중독자들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느낌” “거인이 내 몸을 공중으로 들어올린 느낌” “에너지와 행복감이 충만한 느낌”이라고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매우 강력하고 매력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쾌감의 기억은 그 행위나 물질의 탐닉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중독을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독을 진단하는 기준은 바로 금단 현상이다. 특정한 물질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면 극심한 신체적·심리적 금단 현상을 겪는다. 이때 갈망, 불안, 불면, 우울감,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 두통, 식욕저하, 손떨림, 발한, 빈맥, 어지러움, 소화장애, 고혈압, 심하면 경련을 경험하기도 한다.

행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적인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중독 행위에 빠지는 원인을 찾아 대안을 찾는 행동치료가 도움이 된다. 만일 충동과 금단현상이 극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도 도움이 된다.

중독이 한 번 된 후에는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 이전 상태로 치료가 몹시 어렵다. 그래서 한번 중독에 빠지면 정상적인 학업,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격의 황폐화가 일어나 사회로부터 은둔하고, 고립되어 지내는 것이다.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독이 되지 않도록 미리 전조증상을 발견해서 예방하고,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독 증상의 초기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길 바란다.

모바일의 악몽에서 깨어난 ‘마이크로소프트(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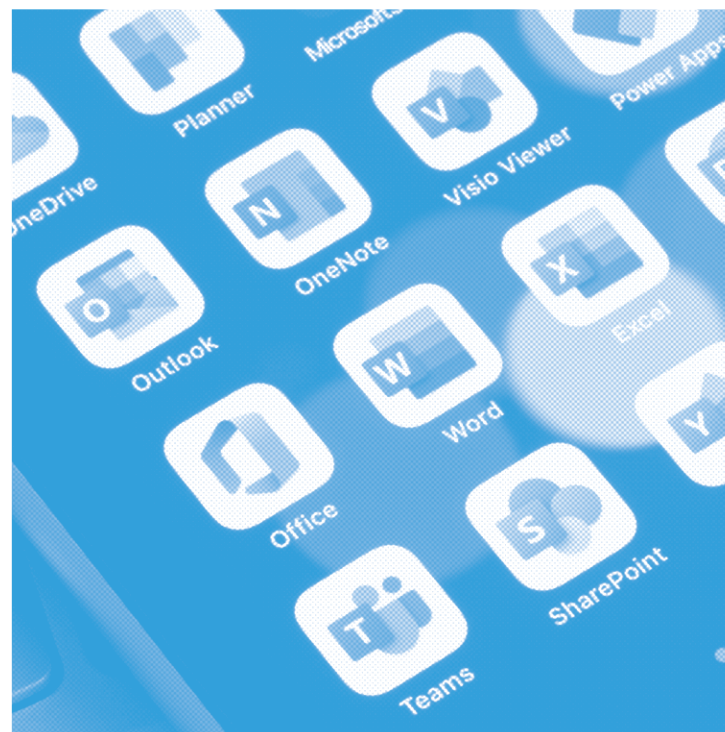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PC 운영체제 ‘윈도즈(Windows)’는 전 세계인들이 PC를 켜면 가장 처음 마주하는 ‘창’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며, 수많은 이들이 그 창 안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저물어가던 IT 왕조, 구원투수로 등장한 나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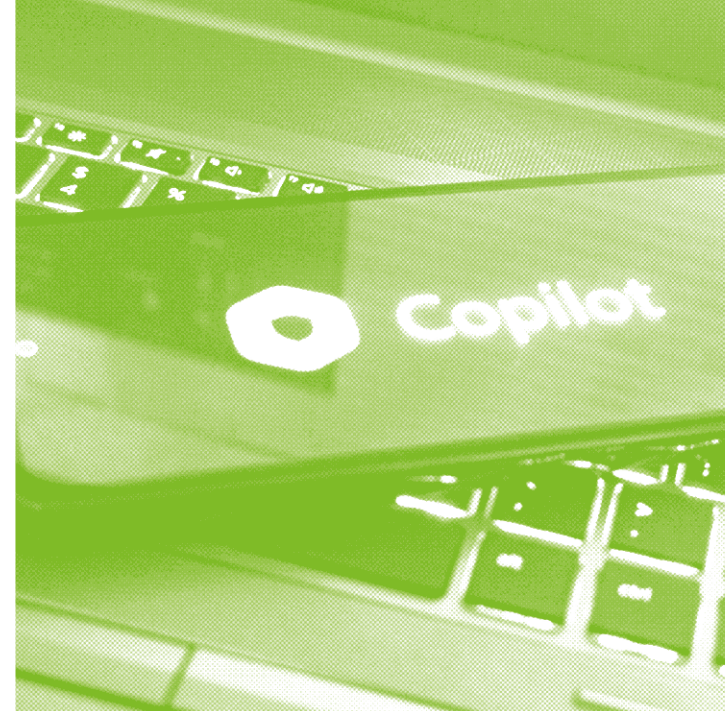
윈도즈로 황금기를 누리던 MS는 2000년대 후반 급격히 성장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고전했다. 모바일용 윈도즈 출시 등을 통해 MS의 모바일화를 꾀하기도 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 사이 애플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애플은 지난 2007년 1월 9일 첫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소프트웨어 iOS를 세상에 내놔는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제시하며 단숨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이후 애플은 MS가 갖고 있던 시가총액 왕좌의 자리까지 탈환하면서 승승장구했다. 반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MS는 시장에서 서서히 잊혔다. 그러던 중 MS는 지난 2014년 사티아 나델라를 CEO로 선임하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를 꾀하는 전략을 택했다. MS의 구원투수로 나선 나델라 CEO는 취임 전까지 22년간 MS에서 엔지니어로 일해 왔다. 그는 서버와 클라우드 등 기업용 비즈니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꼽히는데, MS의 전면에 나선 적도 없는 데다 조직의 중심에서 다소 먼 곳에서 일해 온 나델라의 CEO 취임은 다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이 일어났다. 현재 나델라 CEO의 등장은 MS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끈 신의 한 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나델라 CEO는 어떻게 고착화된 MS의 체질을 개선했을까?

글: 김동현 포춘코리아 기자



PC 운영체제에서 넘볼 수 없던 글로벌 왕자였던 MS가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이했다.



MS, 체질 개선의 신호탄 쏘아 올린다

당시 나델라의 과제는 명확했다. PC 시대를 주도한 이후 혁신이 멈춰선 MS에 새 동력을 만드는 것, 세계 10위권으로 곤두박질 친 시가총액 회복 등이 그것이다. 숙제를 받아 든 나델라 CEO는 조용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MS의 중심에서 먼 인물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그는 빠르게 조직 내부를 쇠신했다. 치열한 내부 경쟁 대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집중했다. 회사의 전성기와 침체기를 지켜보며 누구보다 조직문화를 잘

이해했던 터라 빠르게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를 외치며 MS가 해오던 PC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서버 사업부를 정비해 클라우드 사업부로 새롭게 선보였고,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글로벌화를 이끌었다. 특히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140개 국가에서 200여 개의 데이터센터를 확충하며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한 MS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2013년 분기별 매출액이 40억 달러에 불과했던 사업부가 10년 후인 2013년 3분기 240억 달러를 기록, 6배 이상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전성기 되찾은 MS,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MS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앞세워 PC 시대를 넘어선 ‘포스트 PC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를 통해 MS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샘 올트먼이 이끌던 오픈 AI에 투자해 MS를 단숨에 AI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 기업으로 등극시켰다. 이후 MS는 오픈AI의 챗GPT를 자사 검색엔진 ‘빙(Bing)’에 도입해 새로운 검색도구를 선보이는 과감한 시도를 했는데,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MS오피스 프로그램에 생성형 AI를 입힌 ‘코파일럿’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해 유료 구독 서비스 확대에도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MS는 지난 1월 11일 장 중 한때 시가총액 2조 8,750억 달러를 기록하며 2조 8,730억 달러의 애플을 앞지르는 기염비적인 결과도 냈다. 2년 2개월 만에 잠시나마 시총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평가절하했지만, 업계에서는 AI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바뀔 만한 상징적인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MS는 나델라 CEO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새로운 AI 기능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AI가 결합된 새로운 윈도즈와 클라우드를 공개할 것을 예고한 것. 현재 시장은 MS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MS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2014년 36달러에 불과했던 주가는 2024년 4월 기준 420달러가 됐다. 나아가 PC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해 클라우드와 AI라는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며 다시금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 MS가 전성기를 되찾은 데는 나델라 CEO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나델라 CEO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른 임직원들과 새로운 도전으로 비즈니스 체질을 180도 바꾸도록 물심양면 도운 기업문화 역시 MS에 왕관을 씌운 주역이다.

거짓이 섞인 진실, 진실보다 더 진실이 되다



영화 <댓글부대>

책,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삶에 유용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한전인의 'Talk' 시간. 경북본부 직원들과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댓글부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PANEL

김동현 대리 경북본부 고객센터원부

평소 영화 관람이 취미라는 김동현 대리. 이번 기회로 친한 동료들과 영화 감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영화 <댓글부대>를 보면서 인터넷 쇼핑물 후기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봤다고. '혹시 나도?'란 생각에 세상의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의구심을 가졌다고 한다. 세상을 곧이곧대로 보는 이들과 세상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댓글부대>를 추천하고 싶다고 한다.

김자현 사원 경북본부 전략경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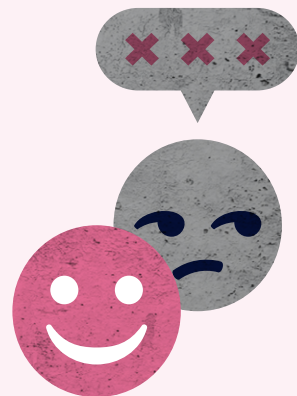
올해 경북본부 전략경영부에서 평가홍보팀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김자현 사원은 최근 블로그 운영에 관심이 생겼다. 좋은 글을 작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다양한 경험이다. 동료들과 함께 영화 한 편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경험인데, 이번에 함께 관람하게 돼서 새로운 경험을 하나 쌓았단다. <댓글부대>는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진근 차장 경북본부 전략경영부

회사생활을 하면서 사보에 처음 참여한 김진근 차장은 다소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즐거운 시간임은 확실했다고 한다. <댓글부대>를 보면서 요즘 정치 상황을 빚대어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며 우리 주변에서도 거짓과 진실의 모호함이 의외로 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렇기에 사회적 경험이 충분한 4050세대에게 <댓글부대>를 추천한다고 소감을 남겼다.

최다은 사원 경북본부 고객센터원부

입사 2년 만에 사보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동기들에게 자랑해야겠다는 최다은 사원. <댓글부대>를 통해 SNS가 가져온 바 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SNS를 달고 사는 도파민 중독자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는 최다은 사원은 미디어 속 '의도된 여론'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영화 감상평을 남겼다.



김동현

“SNS 계정을 구입해 댓글 작업을 하다가 악성댓글로 사회운동가의 딸을 공격하는 장면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온 세상이 나를 욕하는 기분이었지만, 실제로 단 3명이 댓글을 조작한 것뿐이라는 사실에 통감했죠.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서 '나만의 좃대'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고한 좃대가 있어야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100%의 진실보다 1%의 거짓이 있는 진실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 짱뿔킹

“

김자현

“내가 그동안 보고 들은 사실 중 100% 진실인 것은 얼마나 될까?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 걸까?'라는 의심이 영화를 보면서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완전한 진실보다 거짓이 섞인 진실이 더 진실 같다'라는 대사가 인상 깊게 남았어요. 나 또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영화에 댓글 공작으로 인해 20대 대학생이 자살을 택하는데요. 그런데 댓글 공작을 펼친 댓글부대 '팀알렙'이 정말 악역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팀알렙이 여론을 조작했다라 하더라도 20대 대학생들 향한 악성댓글은 네티즌 개개인이 썼기 때문이죠. 결국 모두가 범인이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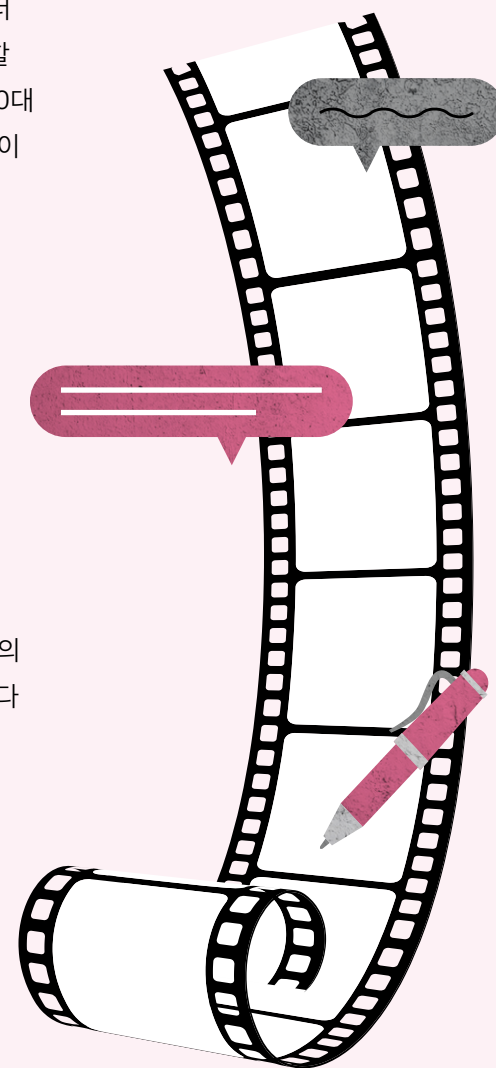
기자님 기사 오보 아니었어요. 다 저희들이 만든 수범이에요. - 찻땀캣

“

김진근

인간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첫인상이 상대방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할뿐더러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요소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요소 때문에 정치 공방에서 네거티브 전술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즉, 작은 거짓이 진실을 숨길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편향적 요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 것이죠.”

나만이 아는 비밀을 소문 내본 적이 있나? 그 캐감은 기자만이 안다. - 임상진



“
최 SNS를 통해 소수의 작당모의가 여러 플랫폼에 퍼지면서 다수에게 영향을
다 미친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그 결과 의도대로 브랜드 이미지가
은 형성되고요. 개인에 대한 여론 또한 마찬가지로여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주변에도 단순히 조회수나 화제를 위해 공장처럼
 찍어내다시피 하는 가짜뉴스들이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모든 스토리의 기본은 갈등이다. -임상진

“
김 기사가 오보로 나가고 임상진 기사가 낯을 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동 보면서 만약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가능해 봤는데, 직종은
현 다르지만 같은 직장인으로서 전혀 상상이 되지 않더군요. 또한, 내가 과연 저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봤습니다. 이렇듯 감정이입을 해보니
 아찔하더라고요. 재미있게도 앞으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임상진 기사가
 맞닥트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팩트 체크를 좀 더 꼼꼼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실과 거짓, 둘 다 우리 안에 있다. -임상진

“
김 직장인이란 한 번쯤 들어가 봤거나 사용해 본 적 있는 직장인 대나무숲 콘셉트의
자 애플리케이션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게시판에 많은 글이 올라오지만, 과연 그
현 많은 글 중 100% 진실인 글은 얼마나 될까요? 영화 <댓글부대>를 보면서 모든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렴풋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과연 정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비극이 만들어지는 데 동조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자기편향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자세가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내린 정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심하는 것.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겠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가 아닐까요?”

기사는 끝나지 않는 연재소설과 같다. -임상진

“
최 우리 삶 곁에는 미디어가 있고, 우리는 곳곳에서 미디어에 노출됩니다.
다 문제는 영화 <댓글부대>처럼 미디어가 의도된 여론을 뿌릴 수 있다는
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쫓대 있는 사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요즘 고민 중입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을 살아. -편집장

“
김 영화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이 모여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자 한편으로는 한 명 한 명이 모여 한 사람의 실직이나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치는 편입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유행어가 꾸준히 사용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에서도 말했지만 자기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가 되었달까요. 극 중 임상진 기사는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미리 정답을
 내려놓고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도 작성하고요. 이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본 글 어디까지 믿으세요?

Tip. MOVIES vs NOVELS

영화 <댓글부대> VS 원작 소설 <댓글부대>

영화 <댓글부대>는 장강명 장편소설 <댓글부대>를 원작으로 한다. 그렇기에 둘을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쏠쏠한 편이다. 영화와 소설 모두 큰 줄거리는 대기업의 비리를 취재하지만 오보로 판명되면서 정직당하는 기자인 주인공의 시점으로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SNS를 통해 임상진의 기사를 댓글로 여론 조작했다는 의문의 제보자가 찾아온다. 큰 줄거리는 비슷하나 결말이 다르다. 영화는 열린 결말이라면, 원작 소설은 꽤 닫힌 결말로 꽤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원작 소설 역시 기업의 비리를 파헤친 기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영화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설은 좀 더 사건 중심으로 돌아간다. 끝없이 몰아치는 사건으로 갈등이 휘몰아치면서 씩씩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를 독자에게 각인시키며 결말을 맺는다.

매주 시간이 되면 나는 본사 지하 연습실로 향한다. 사내 댄스동아리 연습을 하러 말이다. 일찍 가는 날이면 음악을 틀어놓고 스트레칭하며 다른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조금 늦게 가는 날에는 먼저 온 이가 틀어놓은 웰컴송을 들으면서 입장한다. 그렇게 사람이 다 모이면 그때그때 연습하는 곡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안무를 익혀나간다. 한참 땀 흘리며 춤추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난 뒤다. 마무리는 언제나 스마일 인증샷이다.



이런 생활을 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다. 돌이켜보면 입사 후 한동안은 회사-집-회사-집의 반복이었다. 업무는 항상 머리끝까지 쌓여 있었고 지하 주차장부터 31층 베즐리까지 그 큰 건물 내 어디에도 새콤달콤한 맛은 없었다. 별정직으로 입사한 나는 동기가 없어 남들처럼 남측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도 없고, 4시 멸추 김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도 까마득히 몰랐다. 물론 부서 동료분들이 잘 챙겨주신 덕에 소외되는 일 없이 잘 지내기는 했으나, 그래도 타 부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엇을 먹고 사는지 늘 궁금했다. 어디 이쁜인가. 출근 전 퇴근 후 각자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러웠다. 그러던 중 내 회사생활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을 발견한바, 사내 댄스동호회 NJDC 319의 홍보 포스터였다. 보자마자 스스로 '이쯤이면 됐다' '나도 이젠 숨 쉬어가며 회사생활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과 함께 나주 케이팝 댄스의 노예가 됐다.

댄스의 경이로움에 빠져들다

대학 때부터 본격 댄스 인생을 시작했다. 입학하자마자 댄스동아리부터 가입

하고 더 이상 아이돌 커버댄스가 아닌 스트리트댄스를 연마해 나갔다. 힙합댄스라고 많이 아는 스트리트댄스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 비보잉, 락킹, 하우스, 힙합, 크럼프 등이 그렇다. 나는 그중 팝핑을 한다. 팝핀 현준²⁾으로 대표되는 춤으로, 현 시은³⁾ 아빠 구 박남정이 찼던 춤이라 하면 아시려나. 근육을 튕겨 딱 끊었다가 파도처럼 웨이브를 쳤다가 마치 형상기억합금 로봇처럼 추는 춤이다. 그런 움직임에 대프트 핑크⁴⁾ 같은 강렬한 비트의 음악이 어우러지면 참 멋지고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렇게 팝퍼가 되고 싶어 고인물들의 춤을 시작했다는데, 그 난이도 있는 움직임을 몸에 익히려 처음엔 장소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 연습했다. 아무도 없는 곳이면 음악 없이도 팝을 쳤다.⁵⁾ 음악이 없으면 기괴해 보일 수 있는 이 춤에 내리 집중하다 보면 자칫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뒤늦게 뒤통수 레이저를 느끼고 창피하지 않은 척 난 원래 이런 놈인 척 문워크로 슬며시 사라지기도 여러 번. 당시 누군가에게 음악이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라면 내겐 춤이 그랬다. 춤추며 하게 되는 동작은 아무 의미 없는 동작이 아니다. 제대로 된 안무, 동작은 마치 플라톤의 동굴 그림자처럼 그

어떠한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 움직임이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인지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춤을 제대로 춰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처음 하는 동작은 어색하나 연습할수록 그것은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 움직임이란 것을. 이를 몸으로 찾아내는 것이 나는 좋다.

이데아를 춤으로 구현하는 짜릿함

요즘은 춤출 기회가 오히려 회사에서 밖에 잘 없다. 홍대 클럽에서 나이 많고 입뾰⁶⁾ 당한 후론 특히나. 소식적 먹여 살려준 것도 모르고 부들부들했지만 지금 내 옆엔 NJDC가 있어 괜찮다. 새삼 나이 차에도 잘 지내준 동아리원들이 고맙네. 앞으로 동아리 내에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해 보고 싶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한빛홀에서 사장님 모셔놓고 공연하거나 한전인 단체로 광주 클럽도 장 깨기도 해보고 싶다. 아이돌 댄스나 스우파를 볼 때 심장에서 요동치는 바운스를 느낀다면 당신은 동굴 그림자를 그려나갈 자질이 있다.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댄스 여행을 바란다. 빛이 있어 세상은 밝고 따뜻하며 우리 마음에는 내적으로 댄스가 가득할지도 모르니.



- 1) 내적댄스. 나주댄스 아님.
- 2) 1세대 아이돌 영턱스클럽 객원 멤버이자 국내 최고 팝핑 댄서.
- 3) 2020년 데뷔한 6인조 여자 아이돌 STAYC의 멤버. 가수 박남정 딸.
- 4) 1993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한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전자 음악 2인조 가수.
- 5) 팝핑 댄스의 한 동작을 하다의 구어체.
- 6) 입구에서 출입 거절.

봄날의 휴식 같은 편안함

안양군포의왕지사

4월이 잔인한 이유는 찬란함이 과해 일상의 초라함을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안양천에서 만난 봄의 풍경은 흐드러진 벚꽃에도 과하지 않고 편안하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한다는 뜻의 지명답게 안양은 서울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함에도 대도시의 복잡함보다 위성도시로서의 안락함을 갖춘,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다.

안양 충훈부 벚꽃길



정조의 효심과 애민정신이 깃든 만안교.

안양군포의왕지사, 안전표준모델사업소를 실현하다

2023년 12월, 안양지사에서 안양군포의왕지사로 사업소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명칭이 안양지사였는데,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3개 시를 관할하고 있기에 고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관할 지자체에서도 건의해 '안양군포의왕지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안양군포의왕지사는 'KEPCO 안전 표준모델 사업소'를 구축한 '안전특화사업소'다. 현장에서 공감하는 '안전 표준 사업소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기술개발, 역량개발, 현장관리 3개 분야로 나누어 2023년 성과를 내었고,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군포의왕지사는 사업소 간 추진체계, 과제 공유를 통해 2차사업소의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제안할 예정이다. 안양군포의왕지사의 안전 표준모델 사업장 구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1 지사장실에 들어서면 한전의 안전재해 현장의 설비들이 전시되어 지사장의 설명을 직접 들 수 있다. 특히 'Daily Safety Practice(어느 지사장의 하루)'라는 책자를 자체 제작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안양군포의왕지사는 안전관리에 진심이다. 한전-현장소장 협업을 통한 개선과제를 공동발굴해 11건의 제안을 통과하는가 하면, 사무직 간부와 전문위원이 안전패트rollers를 운영하여 현장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2 안양군포의왕지사는 '안전 표준사업소 모델'을 가동해 관내 전력공사업체가 본사 주관 안전관리 우수협력사로 선정됐다.

- 3 지사 건물 앞에 선 안양군포의왕지사 사우들.



동래지사



깔끔한 사무실에 이어 깨끗한 동네까지! 우리 지사는 사옥 주변부터 시작해 안락동 전체 쓰레기 줍기에 나섰다. 25명의 직원이 참석해 안락동 일대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했다. 하나같이 진심으로 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었다.

#동래지사 #우리동래_CleanDay #안락동 #빛나는.우리 #빛나는.거리 #깔끔.청결.깨끗

경영지원처



스치듯 지나가는 짧은 봄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피크닉에 나섰다! 부서원들과 함께 벚꽃과 유채꽃이 만개한 영산강 둔치를 찾아 간단한 점심 식사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대화하며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업무로 지쳤을 직원들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경영지원처 #경영지원부 #봄맞이_피크닉 #도시락 #유채꽃 #봄햇살 #다음에_또와요

#人STARGRAM#

이 코너는 KEP-CNA와 KEPCO-EP사업소 소식에서 발췌하여 꾸며집니다. 사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원본부



우리 본부는 춘천시, SK텔레콤과 함께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전력사용량, 통신 데이터 등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평상시와 다른 패턴을 탐지하면 복지담당자가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강원본부 #춘천시 #SK텔레콤 #1인가구_안부살핌_서비스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고독사_예방

함안전력지사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우리 지사는 변전소 인근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 달분의 식량과 생필품을 선물로 드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따뜻한 봄날의 행복한 기억이 되길 소망한다.

#함안전력지사 #독거노인 #봄_선물 #행복한_시간 #도란도란 #두런두런 #수다

통영지사



통영행복지킴이단이 출범한다! 우리 지사와 시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발굴, 관리,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활동을 한다. 우리 지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과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통영지사 #통영행복지킴이단 #고독사_예방 #복지안전망 #복지네트워크 #행복한_통영_만들기

평택지사



우리 지사 주요 고객인 주한 미군기지 'Camp-Humphreys'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고객사랑 서비스를 시행했다. 전기사용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듣고, 전력 수급 비상시 대응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평택지사 #주한_미군기지 #Camp-Humphreys #찾아가는_고객_서비스 #안정적_전력공급

전북본부



우리 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한전의 ESG경영 실천사례, 안전한 일터 조성,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대한 경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ESG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한걸음 더 가까이 상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북본부 #ESG_경영혁신_자문위원회 #상생 #외부전문가_초청 #안전경영 #산업재해_근절

울산지사, 서울산지사, 동울산지사



울산권 3개 지사와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MOU'를 체결했다.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울산권_3개_지사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_고효율기기_보급지원_MOU



원고사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o.co.kr
문의 061-345-3128

KEPCO NEWS

2024. 05



에너지생태계 협력 선포식 및 토론회 개최

한전은 4월 2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200여 개 혁신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생태계 협력 선포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에너지대전환 시대에 산업계·협회 등 다양한 혁신 플레이어 간 에너지생태계 조성 협력을 다짐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의지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철 사장은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식 성장 모델은 한계”라고 지적한 외신 기사를 언급하며 “한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먼저 변화할 것이며, 국내외 변화와 위기 속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으로 에너지 분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 및 ‘친환경·품질 혁신 기자재 확대 정책’이 공유되었으며, 한전은 참여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혁신기업과의 동행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한 안정적 전력공급 총력

한전은 4월 10일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4일부터 4주간에 걸쳐 전국 253개 선거구의 1만 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등 1만 4,766개 선거 관련 주요 시설에 공급되는 전력설비에 대해 특별점검 및 정비활동을 펼쳤다.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에는 상시 2중 전원 및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급장치(UPS)를 포함한 4중 전원을 구성하고 투표소의 자동전환 비상등 설치 등 완벽한 예방활동으로 한 건의 정전 사고도 허용하지 않았다.

무인 변전소 근무인원과 개표소 전문인력 배치, 투표소 공급선로 특별순시 및 긴급복구 비상대기 등에 총 7,707명의 직원들이 선거 당일 오전 5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본사와 사업소에 전력 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 비상근무를 하며 무결점 전력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공기업 최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한전은 불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한전 맞춤형으로 도입 및 확충하여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한전은 PS-LTE 사용 목적에 따라 재난관리용, 현장안전관리용으로 구분하여 장비 확보 기준, 통합 운영절차, 매뉴얼을 자체 신설했으며, 당초 보유 중이던 291대 단말기를 987대로 확충하여 전국 단위의 실시간 재난안전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통신망의 한계였던 수직적인 보고체계를 PS-LTE를 활용해 수평적인 보고체계로 전환하여 재난·재해 현장에서 본사까지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난안

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방대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말기 733대를 추가로 확충 중이다.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유연한 대처를 위해 행안부,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PS-LTE를 활용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평시에도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공군 지능형 전력망 고도화 사업 추진 위한 합의서 체결

한전과 공군은 4월 17일 공군본부에서 ‘공군 지능형 전력망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전과 공군은 2016년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19전투비행단 등 8개 공군기지의 전력설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전은 공군기지의 전력설비를 지중화하고, 정전구간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과 환상망 네트워크 계통방식을 적용하여 신속한 정전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전력망 종합운영 플랫폼인 ADMS를 활용하여 공군 부대의 전력설비를 고도화한다. 한전은 공군의 전력설비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ADMS 시스템을 개발, 공군 각 부대에 적용하여 전력설비 고속 감시제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고장구간 자동복구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최신 기술인 ADMS를 공군 전력설비에 적용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 설비와 디젤발전기를 결합한 군 최초 맞춤형 에너지 자립설비 구축을 통해 국가 중요 설비에 대한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용량 고객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도’ 도입

한전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 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도’를 도입했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 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정상시 60.0Hz 유지)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하여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할 예정이다. 154kV 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철도, 병원 등 국민불편초래 대상 제외)으로 최대 1.0GW의 부하량을 확보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운영보상금(계약 kW당 1,320원)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차보상금(감축 kW당 98,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에너지밸리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참여

한전은 4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도권 유망 기업의 에너지밸리 기업유치 및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시행된 ‘2024 에너지밸리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은 7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727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약속받았다. 더불어 한전과 나주시, 그리고 유관기관들과의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에너지밸리 상생발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이준호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밸리 조성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10년 후 에너지밸리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이자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은 향후 에너지밸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01 퍼즐 맞추기 quiz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춰 주세요!
Hint. 12~13쪽 'ZOOM IN'를 참고하세요.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① 번



② 번



③ 번



④ 번



02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권*현(3156)	홍*원(0273)
도*득(4324)	홍*기(1809)
노*창(0620)	변*지(2486)
신*현(8445)	백*우(1287)
김*현(3371)	안*림(0073)
정*현(4019)	서*하(3215)
노*혁(5327)	김*중(9433)
황*철(5851)	이*노(0601)
오*택(5877)	구*식(6110)
장*희(6787)	김*환(9379)
이*석(7850)	김*하(3620)
김*휘(3293)	조*현(4776)
임*호(6706)	고*민(2446)
박*진(9169)	김*원(0320)
김*후(4684)	한*빈(2185)

03 지난호 정답

② 번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전,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하루 1kWh 절약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